

르네상스의 빛나는 역사를 일군 귀족들

인문주의자를 불러모았던 패트런과 문필가

이광주

인제대 명예교수 · 서양사

유럽 12세기는 아름답고 우아한 삶의 양식이 수놓은 기사도가 절정에 달하고 궁정문화가 꽃피기 시작한 시기다. 그러한 흐름 속에서 '교양 있는 왕'과 그를 본받은 귀족들은 학예의 애호가(愛好者)가 되었다. 1155년 경 티무르 제국 사마르칸드의 한 시인은 잘 갖추어진 궁정은 네명의 교양인, 즉 서기관, 점성술가(占星術家)·의사와 더불어 시인을 거느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왕의 공적과 승리는 말 재주가 능란한 시인 없이는 영구불멸할 수 없다." 우리들은 이미 호화 미장본의 소장가, 서재와 도서관의 주인 혹은 창건자로서 왕후들이 서적 문화에 끼친 찬란한 행적에 관해 살펴보았다. 그들이 학예의 '패트런' 즉 후원자로서 길이 기록됨은 자연스런 일이었다.

교양 있는 왕과 귀족들

학예 애호가로서 패트런의 존재는 그 라틴어 어원 'patronus'가 말해주듯 고대 그리스-로마시대 거슬러오른다. 패트런 중심의 학예 서클 내지 살롱도 로마시대부터 이미 존재했다. 그러나 패트런의 역사에 있어 가장 명성이 높은 가문은 로렌초(1449~1492)를 중심으로 한 피렌체의 유럽 최대 금융자본가인 메디치가이다. 메디치가의 뒷받침 없이는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빛나는 역사를 생각할 수 없다. 미켈란젤로, 다 빈치의 후원자로서도 유명한 로렌초는 또한 플라톤 아카데미의 창립에서 볼 수 있듯이 '좋은 문학'과 인문주의자들의 훌륭한 패트런이기도 하였다.

이탈리아 르네상스는 알프스 산맥 너머 유럽 여러나라 궁정사회 혹은 상류 교양계층에 예술과 '좋은 문학'을 뿌리 내리게 하였다. 로렌초 이후 최대의 학예 패트런인 프랑스의 프랑수와 1세는 인문주의자들을 위해 1530년 콜레주 드 프랑스를 세웠다. 이제 그를 본받아 여러 나라 귀족들은 앞을 다투어 학예 패트런이 되었다. 이러한 분위기가 조성된 데에는 당시 귀족사회의 필독서가 되다시피한 이탈리아 카스티리오네의 《정신론(廷臣論)》(1528)의 감화가 컸다.

전형적인 궁정인상(像)을 서술한 글에서

음유시인과 같은 떠돌이요,
식객의 신세를 면치 못했던
문필가들에게, 아직 출판사가
없던 시절 저작을 책으로
만들어주고 숙식을 해결하고
때로 일터까지 보살펴주는
패트런의 손길은 구세주와
같은 존재였다.

그 자신 궁정인이던 저자는 "궁정인은 스스로 문필의 소양이 있어야 하며 그와 더불어 뛰어난 문인을 주변에 모이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패트런을 통해 궁정에 출입하고 문학이 상류계층 교양의 핵심이 되면서 문필가는 동업자 조합에서 해방되었고 이제 주문자의 뜻에 따라 글을 쓰는 펜의 장인이 아닌, 자아를 지닌 문인 내지 저술가가 되었다. 이러한 근대적인 문필가의 탄생과 시기를 같이 하여 화공이 아닌 창의적 '예술가' 또한 출현하였다. 그러면 문필가는 과연 얼마나 자주적이었을까.

문필가의 사회적 위상은 폭넓은 독자층과 건전한 출판문화의 존재와 깊이 관련된다. 유럽에서 서적을 가까이 하는 독자층이 성립된 곳은 자본주의적 시민사회가 태동된 17세기 영국이다. 15세기 구텐베르크의 활판 인쇄술 이전의 사본(寫本)시대에 서적이란 대개 1~2부, 기껏하여 5부를 넘지 않아 그만큼 값비싼 희귀본이었다. 그리고 대개 왕후나 고위 성직자의 주문에 의해 제작되었다. 한편 적지 않은 문필가들은 성직이나 대학교사 혹은 궁정인으로서 본업을 갖고 있었다. '영시(英詩)의 아버지'로 불리는 초서도 정신(廷臣)이었으며 그의 《켄터베리 이야기》도 여기에 썩어졌다. 문필 전업의 경우 대개 가난과 사회적 불안이 뒤따라 그들은 중세의 음유시인과 같은 떠돌이요, 식객의 신세를 면치 못하였다. 그러므로 아직 출판사가 없었던 시대에 저작을 책으로 만들어주고 숙식을 해결하고 때로는 일터까지도 보살펴주는 패트런의 손길은



문필가가 패트런인 부르고뉴 공작에게 작품을 헌정하는 장면(1448).

문필가들에게 구세주와 같은 존재였다.

패트런, 문필가 및 헌정사

15세기 호화 특제본에는 홀을 메운 내빈들의 주시 속에서 작가가 패트런에게 헌정본을 바치는 장면을 그린 세밀화(細密畫)가 적지 않다. 대소 귀족들이 떠나없이 문학 패트런이 된 것도 어쩌면 이 장면을 연출하기 위해서인지 모른다.

그러면 문필가는 패트런에게 어떻게 보답하였으며 양자의 관계는 어떠하였을까. 12세기 프랑스의 어느 기사(騎士)이야기를 쓴 작가는 헌정(獻呈) 머리말에서 그 작품이 패트런인 백작부인의 '지시'에 따라서 소재와 중심사상이 정해졌음을 명기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그 작품이 미완성으로 끝난 것은 패트런의 뜻대로 궁정풍 연애의 관례에 따라서 서술함을 작가가 달가워하지 않았던 때문이라 한다. 이 작가의 경우는 좋은 편이었다. 많은 문필가들은 패트런의 시종이나 추종자와 다름 없었다. 이러한 사실은 패트런에게 바친 '절도' 없는 헌정사에 잘 드러나고 있다.

프랑스의 어느 후작은 그가 비호하는 작가로부터 다음과 같은 헌사(獻辭)를 받았다. "다른 작가 같으면 당신을 칭송할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름다운 몸매, 완벽한 미, 연마된 정신, 고귀한 마음, 누구나 감탄할 많은 장점, 그러한 당신께서 찬미 가득히 숭배됨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소생으로 말하면, 존경의 마음으로써 침묵함이 더욱 더 적절하고 가치 있게 여겨집니다....."

위계(位階)와 의례에 의해 꾸며지는 귀족사회란 허례허식에 물든 세계다. 금전을 좇아 절도를 잃은 문사들은 때로는 몇 페이지에 걸친 장문의 헌정사에 아부와 추종을 서슴지 않았다. 궁정문화가 절정이던 16, 17세기에는 헌정사 없는 서적이 없을 정도였다. 그 자신 당대 최대의 패트런이던 영국의 엘리자베드여왕 치하(1533~1603)에서는 헌정사만을 모은 앤솔러지가 출간되기까지 하였다. 그리고 헌정본에서 저자명은 헌사의 끝에서만 읽을 수 있었다.

헌정사 모두가 아부하고 아양을 떨었던 것은 물론 아니다. 제1급의 문필가들과 패트런은 서로 인격적으로 대하였다. 16세기 중반을 지나면 그들의 저작은 출판사를 통해 5백부 이상 인쇄되어 범유럽적으로 교양계층 사이에서 읽혔다. 17세기 중엽 이후 근대의 독자계층 성립 이전에 그들은 이미 자신의 독자층을 확보하고 있었다.

황제 카를 4세가 페트라르카에게 작품을 써 주면 패트런이 되어주리라 한 데 대해 그 이탈리아 르네상스 최고의 휴머니스트는 다음과 같이 점잖게 거절하였다. "폐하가 진정 위대한 인물이라는 사실이 증명될 만한 행적을 이루신다면 그리고 때맞추어 저에게 시간 여유가 주어진다면 기꺼이 그 바램을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솔보’의 파안대소

‘솔보’는 간혹 주인 아저씨의 자전거를 뒤따라
한강 둔치의 풀숲을 신나게 달려 볼 때가 있습니다.
저희도 녀석의 작으나 힘찬 달음박질의 기세로
신나고 보람차게 일을 꺾치고 달려갑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각종 학술 서적과 사전류를 비롯하여 아동 도서, 잡지, 사보, 자서전, 회고록, 개인문집, 학회지에 이르기까지 모든 출판물의 편집 업무를 총괄하여 대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저희는 원고 집필에서 교정, 편집 디자인, 전산 조판, 필름 출력에 이르는 전공정의 업무를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인력과 설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올해 창립 10주년을 맞이하면서 저희는 더욱 새로운 각오와 정성으로 여러분의 힘이 되어 드리하고자 합니다. 최대한의 서비스를 약속드리겠습니다.

올해 창립 10주년을 맞이하면서 저희는 더욱 새로운 각오와 정성으로

여러분의 힘이 되어 드리하고자 합니다. 최대한의 서비스를 약속드리겠습니다.



三現編輯室 SINCE 1989

137-030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26-15 (우림빌딩 5층)
전 화: 549-6883~5 팩 스: 549-6877
천리안 ID: SAMYEUN

페트라르카는 또 저작권의 관념을 가진 최초의 문필가이기도 하였다.

동시대의 보카치오는 페트라르카와는 달랐다. 《데카메론》의 저자는 그의 논술 《군자(君子)의 몰락》을 애초에는 명성을 위해 교황·황제·귀족 등 패트런의 ‘후보자들’ 중에서 누구에게 헌정할까 망설이다가 옛 친구에게 바쳤다. 이러한 사실을 보카치오는 놀랍게도 그 친구에게 고백하고 있다.

16세기 최고의 지식인 에라스무스는 그의 《치우신 예찬》(1509, 이 책은 당시 베스트 셀러로서 1만부 이상 인쇄됐다)을 ‘친애하는 벗 토마스 모어’에 바쳤으며, 철학자 비코는 《우리들의 시대의 학문방법》(1709)을 ‘권능하신 스페인과 나폴리의 국왕 페하이신 오스트리아의 카알 3세’에게 1708년 왕립대학 개강식의 감사와 공순한 마음의 징표로써 바쳤다. 이 저작은 원래 개강식에서 행한 강연이었다.

한 문필가가 여러 패트런을 갖는 경우도 흔하였다. 같은 헌정사를 3~4개 미리 써 놓고 상대를 찾아 보여주고는 흥정하는 암묵도 적지 않았다. 그리고 헌정사에는 가격이 붙어다녔다. 17세기 영국에서는 대개 20~40파운드를 오락가락하고 저작자의 수가 많아지면서 5파운드까지 폭락하기도 하였다. 거기에는 패트런의 변덕도 크게 작용하였다. 5파운드라고 하지만 장인들의 연수입이 보통 5~6파운드였을 때다. 셰익스피어는 시작품 《비너스와 아도니스》(1593)를 헌정하여 사우스햄프턴 백작으로부터 1천파운드를 받았다고 한다. 패트런 중에는 살롱의 여주인이며 재색을 겸비한 귀부인도 적지 않아 루소와 바랑스부인의 ‘관계’에서 볼 수 있듯이 로망스의 화제를 뿌리기도 하였다.

사무엘 존슨의 ‘독립선언’

문필가에 대한 패트런의 영향력은 18세기 중엽까지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몽테뉴의 《에세이》(1598)는 ‘독자에게’ 바치는 머리말에서 그것이 “친척과 벗들의 즐거움과 위안을 위해” 씌어졌음을 밝히고 있다. 괴테의 《파우스트》(1806) 제1부

첫머리의 헌시(獻詩)는 그 대작이 괴테 자신의 자아의 결정체임을 시사한다. 이제 문필가는 자기 자신과 독자를 위해 글을 쓰게 되었으며 독자가 바로 패트런이 되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영국 최초의 영어사전 편집자인 사무엘 존슨은 그 제작에 앞서서 체스터필드 백작에게 원조를 청하였으나, 백작은 거절했다. 9년간의 천신만고 끝에 《영어사전》(1755)이 완성되자 백작은 그 사업의 패트런인 체하였다. 다음의 글은 후안무치한 백작에게 들이댄 존슨의 유명한 편지이다.

“지난 날 현관에서 찾아뵈고자 한 지도, 아니 현관에서 거절당한 지도 벌써 7년이 지났습니다. 소생은 그 7년 동안 여전히 일을 계속하였습니다. 그간 당한 어려움이 어떠한가에 대해서는 푸념으로 여길 것이므로 일부터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7년의 고생 끝에 줄서는 한푼의 보조도 받지 않고 한마디의 격려나 호의적인 배려도 받지 못하고 겨우 출판의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소생은 아직 패트런 밑에 있었던 경험이 없으므로, 귀하로부터 그러한 취급을 받으리라고는 전혀 예기치 못하였습니다. 패트런이란 금방 물에 빠지는 순간을 냉담하게 바라보다가 겨우 물가에 헤엄쳐 다다르자 고의로 방해가 될 도움을 주는 것인지, 소생의 노고에 대한 찬사는 감사하는 바이오나, 단지 그것이 뒤늦은 것임을 유감으로 생각할 뿐입니다. 지금에 이르러서는 고맙게 받을 수 없습니다. 귀인(貴人)의 천거도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을 때의 일, 사실에 있어 아무런 도움도 받지 않았는데 사의를 표하지 않는다 하여, 또 하늘의 가호에 의해 이룩한 일이 한 패트런을 위함이었다고 오해받기를 싫다고 하여 그것을 꼭 알곳은 작은 분노의 결과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까지 자력으로 사업을 계속해 온 이상 앞으로는 더욱 더 타인의 은고(恩顧)는 입지 않을 생각입니다.”

존슨의 이 글은 문필가와 서적 문화의 역사를 가늠하는 기념비적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문필가는 진실로 자유롭게 되었을까. ❖